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원주 과크밸리골프클럽 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

김대식 (주)대건 회장 별세

김대식 (주)대건 회장이 지난 20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1세. 김 회장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주)대건사 대표, 도농구협회장, 춘천상공회의소 심임위원, 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 (주) 대건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신일상호신용금고 사장으로 활동하며 건설업 노하무들 금융업에 접목시켜 지역 상공인들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향란씨와 1남. 조문은 28일 오후 6시부터 가능. △발인=30일 오전 8시 △영결식=30일 오전 9시 (주)대건 본사 사무실 △장지=춘천시 동산추모공원 △빈소=강원효장례문화원 독실 △연락처=(033) 253-7101.

희석 아버지님 김해김씨 대식께서
2018년 9월 20일 오후 7시 2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강원도장례문화원

※ 조문시간 : 9월 28일(토) 오후 6시부터가 예정입니다.

발인일시 : 2018년 9월 30일(일) 오전 8시

장 지 : 동산추모공원(춘천시 동산면 중자리 331-50)

부인 최향란

아들 김희석

며느리 민정희

손녀 김보민

손자 김준혁

※ 연락처 : (주)대진 033-253-7101

※ 성전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조화와 부의의미 정중히 사양합니다.

〈 개별부고생략 〉

고 김대식 회장 회사장공고

당사 김대식 회장께서 2018년
9월 20일 오후 7시 20분 별세하셨기에
영결식을 다음과 같이 (주)대진·
(주)송림건설 회사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영결일시 : 2018년 9월 30일(일) 오전 9시

영결장소 : (주)대진 본사 사무실

■ 장례위원장 : 최진현 이소우

■ 부위원장 : 김대진 이소우 이찬배 조영근 한행수
이현영 이인석 최재현

■ 장례위원 : 노은수 최재호 서명구 이천규 최유석 김승명
김범기 정용오 권오진 김구희 양광식 신대규
김대진 정인철 최성철 최명원 주영민 신근하
조정영 조성신 최재식 정우철 손인수 강상훈
이보주 박대진 유대현 송인우 임은미 심재임
김근영

(주)대진 · (주)송림건설

강원권단련, 28일 제5차 정기회의… 업계 현안 논의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사진)은 28일 강원도 원주파크밸리골프클럽 회의실에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내화충진구조 설치규정 준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이번 정기회의에서 강원권단련은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건

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등 현안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안갯속… 의견조율 난항

건설산업의 ‘칸막이’와 ‘다단계’를 없애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안갯속에 빠졌다.

정부가 당초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종합과 전문 등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여의치 않은 데다, 다음달로 다가온 국정감사 등이 변수로 남아있는 탓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모양새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공정경쟁의 원칙에 비추어 조정할 후 종합적인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하겠

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이달 내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해관계자 간 간극이 좁아져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키워드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이다.

업역의 경우 국토부는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과 전문이 상대 영역에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사금액 50~90%의 범위 안에서 주력업종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대해 원도급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칸막이’ 제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종합은 예외 없는 전면적 업역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문은 소규모 공사구간의 전문영역 보장을 주장하며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방안 놓고 업계 평행선… 이달 발표 물 건너가 다음달 국정감사… 속도대기 어려워

로드맵 나와도 산업혁신 ‘산 넘어 산’

건설법 개정 등 종합·전문 합의 관건

서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이다.

업종도 업역과 업종의 개편 순서, 토목건축 폐지, 유사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좁아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등록

기준 역시 종합과 전문 간 형평성 등을 들며 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과 전문 간 균형을 맞추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이달을 넘기면 시 로드맵은 또 다른 변수와 맞닥뜨리게 됐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다음달은 당장 국정감사 시즌이다.

국감 동안에는 국회에 발의가 잡힐 가능성이 작지 않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더라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완성엔 ‘산 넘어 산’이다.

생산구조 혁신은 제도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의 틀을 흔들어야 하는데, 발주자 임금지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설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발의가 묶여있는 상태다.

건설 일자리에 생산구조 혁신에 대한 논의가 더해지면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토부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발의된 건설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구조 혁신을 담은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도 “종합·전문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진 대안이 제시되면 예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2018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총 54조원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기업규모별 (단위: 원)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4兆… 전년보다 4% 증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한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주체별로는 공공이 10조7000억원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0.8% 늘었고, 민간이 43조3000억원으로 4.7% 확대됐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과 토목이 각각 42조

공공·민간·건축·토목 모두 늘어 51~1000위 기업 계약액은 감소

9000억원, 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2.9% 증가했다.

다만, 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대비로는 10.1%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은 전년보다 0.7% 증가했지만 공공은 전년 대비 37.4% 감소했고, 건축은 전분기보다 17.9% 늘어났지만 토목은 도로철도공사 감소 여파로 무려 53.2%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과 1000위 밖 기업 계약액이 증가한 반면 51~1000위 사이의 기업은 감소했다.

실제 상위 1~50위 기업은 21조2000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1000위 밖 기업은 22조원으로 17.4%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51~100위 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26.4% 줄어든 2조6000억원, 101~300위 기업은 20.1% 감소한 3조9000억원, 301~1000위 기업은 7.5% 축소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7조4000억원, 비수도권은 0.3% 늘어난 26조6000억원이었다.

분야 소재지의 경우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5.7% 늘어난 31조8000억원, 비수도권은 1.5% 증가한 2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남기자